

어둠 속에서 밝은 밖으로 나온 부활 예수 성심상



서울대교구 시흥4동 성당은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을 맞이하여 6월 26일(수) 교우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전 앞에서 부활 예수성심상 축복식이 거행되었다. 기존에 있던 예수 십자가상은 1995년 본당 설립 시 양형석(루카) 본당 주임 신부님께서 진주 연립 3동을 매입해 철골로 성전건립하여 제대 뒤 대형 목 십자가를 세웠으나, 2014년 변우찬(사도 요한) 주임 신부님께서 ‘대형 십자가의 큰 의미를 부여하지 못한다 하여 십자가가 없는 오상의 예수님상만 두었다가 2017년 교육관 신축과 성전 개축을 하면서 행렬 십자가로 바꾸면서 기존의 예수님상을 옮겨 안착한 것이나 성전 외부 벽돌색상과 조화가 맞지 않아 마치 어두운 동굴 속의 예수님상과 같아 이것은 아니라는 교우들의 지적이 있었다. “그의 모습은 번개 같고 옷은 눈처럼 희었다.”(마태오 28.3) 복

음 말씀대로 안착한 부활 예수성심상은 뜻이 있는 14명 교우들의 정성 어린 봉헌금으로 제작하여 봉헌자 성명과 세례명이 부활 예수성심상 앞에 못쇠로 명판을 새겨 부착되었다. 부활 예수성심상을 축복하기 전 특이한 현상이 일어났다. 신원 미상 떠돌이 행인이 와서 축복 전 예수성심상을 보고 횡설수설 하면서 도무지 알 수 없는 이유를 대며 행패를 부리는 모습을 보시고 주임 신부님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큰일이나 올바른 일을 하시려면 반드시 악령이 나타나 온갖 행패를 부리는 것이 복음 성경과 같으니 오늘 이 거룩한 부활 예



수성심상 축복과 안착을 보고 악령들이 교묘하게 침투하여 인간 방해하는 짓으로 생각이 든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마치니 아마 시흥4동 성당의 큰 과제들이 순조롭게 하느님께서 들어 주실 것으로 믿으며 다 같이 정성을 다하여 축복 기도를 바칩시다. 란 말씀과 함께 참여한 교우들의 일치된 기도와 신부님의 성수 뿌림으로서 축복식을 마친 후 단체 기념촬영을 하기 위해 모여든 교우들의 얼굴에는 기쁨 미소가 듬뿍 차 있었다. 중장비로 조심스럽게 올려진 예수성심상은 땅에서 좌우 방향을 조정하는 교우들의 손놀림에 따라 움직이며 좌정이 되었다.

주일학교 세례 갱신과 첫영성체 후 조촐한 만찬

천주교 서울대교구 시흥4동 성당 청소년부와 초등부 주일학교 8명은 6월 15일(토) 교육관 그리스도왕 홀에서 세례 갱신식과 첫영성체를 마치고 자모회에서 마련한 파티 음식을 정미랑 (테레지나)수녀님과 함께 먹으면서 세례갱신과 첫영성체 대한 재미나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